





확트인 서해안을 바라보며
 깨끗한 바닷물과 은빛
 찬란한 백사장이 황금빛
 바람에 풍성함을 더하는
 가을바다. 천혜의 절경속에
 해안선을 따라 즐비한 포구와 갯벌,
 황홀한 낙조의 풍광이
 어촌의 정겨움과 어우러져
 바라만 보아도 가슴이
 따뜻해질 것이다.

글 | 최성민 여행전문기자

낙엽지는 산보다 가을바다는 더 쓸쓸하다. 발
 자국들만 무수히 쌓여 속삭이는 백사장은 낙엽 흘
 날리는 오솔길보다 훨씬 더 호젓하다. 가을바다에
 서는 먼 수평선에 일직선을 그으며 홀로 허우적대
 는 무역선의 모습도 쓸쓸하기만 하다.

쓸쓸한 가을, 이 쓸쓸함과 만끽하고 친해져 버
 리는 것으로 쓸쓸함을 이기려면 호젓함이 가득한
 바닷가 쪽으로 여행을 가 볼 일이다.

리아스식 해안으로 이름 높은 서해안은 어딜가
 나 호젓함이 가득 쌓여있다. 전남 함평-무안 바닷
 가는 들고 남이 어찌 어지러운지 비행기로 내려다
 보면서 그림을 그릴지라도 해안선 간 데가 헛갈릴
 정도이다. 해안선의 오목 볼록이 심하다는 것은 해
 안 풍치가 수려하고, 갯벌이 넓고, 먹이를 구하거
 나 알 낳으러 찾아드는 고기들이 많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볼록한 해안선은 파도를 막아주고 오목

한 곳엔 주변 산에서 흙이 흘러내려 갯벌로 쌓인다. 그런 곳은 물이 들면 호수처럼 잔잔하고 갯벌 플랑크톤과 해조가 많아 조개와 고기들의 삶터가 된다.

함평은 '함평친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넓은 들을 상징하지만 그들의 상당부분은 갯벌을 막아 이룬 것이다. 함평의 바닷가에 돌머리해수욕장이 있다. 요즘 이곳은 적잖은 돈을 들여 친환경적으로 잘 손질을 해놓았다. 모래밭 주변에 여느 해변과는 달리 황톳길을 둘러고 백사장 귀퉁이 곳곳엔 원두막을 세웠다. 원두막 앞 넓은 갯벌 한쪽엔 대나무 울타리를 쳐서 경계를 만들고 한쪽은 깊게 파 놓았다. 물이 들 때 대나무 울타리 너머

로 폭포수처럼 흘러들게 해서 밀물 썰물의 드나듦을 한 눈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돌머리 원두막에서 요즘 가을 낚시꾼들이 호젓함을 낚고 있다. 그 호젓함을 미끼로 오인해 낚여 올라오는 것은 망둥이들이다. 망둥이를 남쪽에서는 운저리라고 한다. 이 운저리라는 고기는 가을 바닷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먹성이 좋아서 따로 정해진 미끼가 없이 제 살을 떼어 넣어도 잘 물고 늘어난다. 한 시간에 10~20마리의 팔뚝만한 몸집들이 들어 올려진다. 툭툭 채다가 짝 끌어당겨 물고 도망가려 하는 순간에 여지없이 걸려든다. 그 순간 포착과 달아나는 힘을 역이용해서 되치기하는 손맛은 운저리 낚시에서만



‘함’은 두루 미처 총만함을
 뜻하고 ‘평’은 모두가
 화평한 상태를 이룬
 ‘함평’이란 지명엔
 근심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
 깃들어 있다.



느낄 수 있는 맛이다.

채비가 간단하고(뉘싯대와 미끼로 갯지렁이나 새우, 돼지비계 정도만 있으면 된다) 바닷가 백사장이나 갯바위에서 할 수 있어 여성들도 즐긴다. 단, 앞에 갯벌이 발달한 곳이 좋다. 그리고 밀물때 물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만조에 이를 때까지 잘 물고, 썰물로 바뀌는 순간 입질 이 딱 끊어진다.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미리 감지하고 한 발 앞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잡은 운저리는 현장에서 회를 떠먹기도 하고, 고추와 양파를 썰어 넣어 조림을 하거나 뼈득뼈득 말렸다가 겨울에 구워 먹기도 한다.

돌머리해수욕장 주변은 황토밭이다. 끝간 데 없이 황토밭이 펼쳐지는 별판 꼬트머리, 호수같은 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곳마다 그림같은 민박 전원주택들이 들어서 있다. 방 하나 가족단위 1박에 4만 원 안팎이다. 반찬거리는 주변에서 직접 잡거나 살 수 있는 운저리나 빨낙지 등이 될 것이다.

함평 바닷가는 가까이에 있는 해제-무안 쪽으로 이어진다. 계절의 분위기에 맞춰 이름 없는 어촌에 걸음을 내렸다. 굳이 이름을 알아보니 어디에나 흔한 ‘남촌’이라는 곳이 있다. 마을 끝 바닷가에는 ‘도로 끝’이라는 표지가 크게 서 있다. 호젓함에 너무 취한 나머지 가속기를 밟아 바다로 돌진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일까? 부닷가엔 그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어부 서넛이 새우 그물을 꿰매고 있다. 남촌 어귀엔 저녁 해가 긴 여운을 남기며 기울고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바위섬에 묘비가 서 있다. 누군가 고기잡이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낯인 모양인데, 살았을 적 그가 무척 절절한 혼을 걸치고 있었고 가족과 후손들이 그것을 기려 이 외로움이 밀려드는 물길에 비석을 세웠을 것이리라... (🌀)

